평창의 봄

“한반도의 등줄기인 태백산맥을 분수령으로 영동과 영서로 나뉜다. 영동지방은 대관령, 미시령, 진부령 등 많은 고개와 계곡이 산재하며 영서지방은 산악과 분지가 서쪽으로 완만하게 뻗어 나간다. 산과 바다 사이에 이름난 호수와 기이하고 훌륭한 경치가 수도 없이 펼쳐진다.”

“동해는 조수가 없어 물이 탁하지 않아서 깊고 푸른 바다라 부른다. 항구와 섬 같은 앞을 가리는 것이 없어 큰 못가에 임한 듯 넓고 아득한 기상이 자못 굉장하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이름난 호수와 기이한 바위가 많아, 높은 데 오르면 푸른 바다가 넓고 멀리 아득하게 보이며, 골짜기에 들어가면 물과 돌이 아늑하여, 경치가 나라 안에서 참으로 제일이다.”

– 이중환(李重煥), 『택리지(擇里志)』(1751)

이번 전시는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태백산맥과 맑은 동해 바다를 배경으로 펼쳐진 강원도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지역민들의 삶에 초점을 맞춰 기획되었다. 지역 구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공공성을 담은 디자인은 우리 일상 속에서 많은 가치를 발현하며 삶을 풍요롭게 한다.

공공디자인은 일상에서 매일 만나 공동체 구성원들과 나누는 아침 인사와 같다. 지역 공동체 구성원들의 유기적 관계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공동체의 삶, 더 넓게는 공유의 가치를 디자인한다는 의미에서 공공디자인은 사회적 가치를 지닌다. 그러므로 공공디자인은 개최 지역의 특성에 기반해 지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자원을 보유한 강원도 평창을 배경으로 공공성과 일상성을 담은 디자인은 지역과 관계를 맺고 다양한 이야기를 생산해 낸다. 올림픽 개최 지역의 문화와 그 지역민들의 일상에 가까이 다가선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그 가치를 재조명하며, 공공디자인이 나아갈 방향을 고민해 본다.

〈평창의 봄〉은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이 시작되는 겨울과 올림픽 이후 봄을 맞은 평창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 올림픽의 시작과 함께 작동될 많은 행사가 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올림픽 유산으로 계속 뿌리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하며, 개최지의 삶에 기반을 두고 창출될 다양한 가치와 디자인의 방향을 그려 보고, 공공성과 디자인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 보는 것은 물론, 평창에 필요한 공공디자인을 상상해 본다.

전시 개요

전시명 : 평창의 봄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전시기간 : 2017. 4. 25(화) ~ 5. 9(화) (전시기간 중 휴관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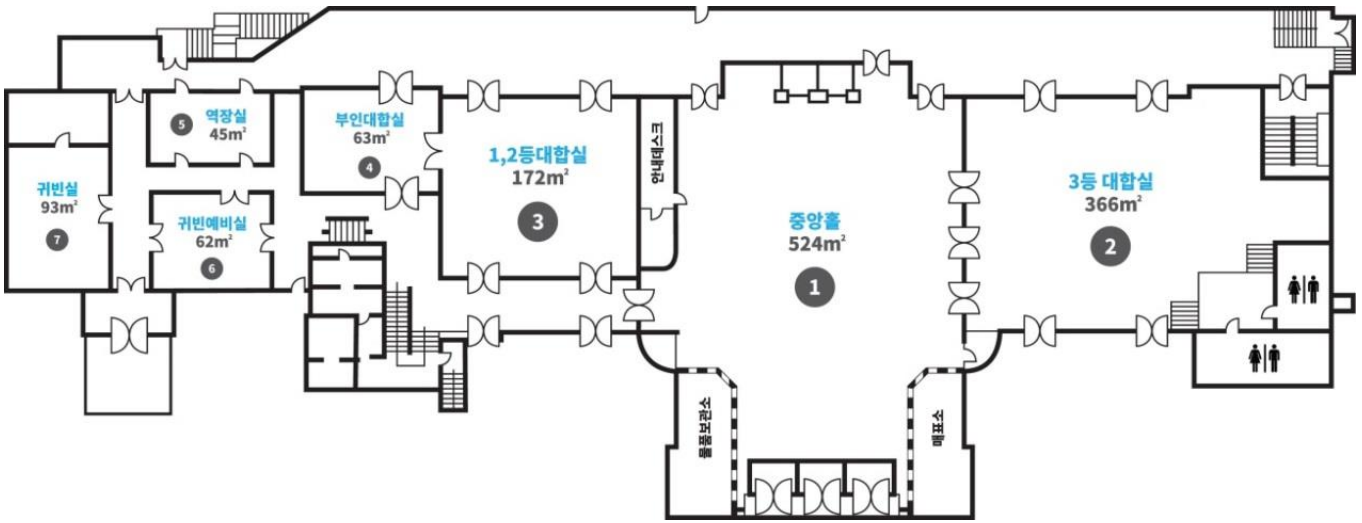
주관 : (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 오프닝 : 2017. 4. 25(화) 17:00 문화역서울284 1층 중앙홀

전시장소 : 문화역서울 284 1층

관람시간 : 10:00~19:00 (5. 9(화) 16:00까지)

***** 입장 마감시간: 관람 종료 30분 전



전시 개요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KCDF)

전시 기획
KCDF 디자인문화진흥팀
총괄 전미연 팀장
진행 송유미 선임, 황효연 연구원

공간 기획
총괄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김건태
진행 양재형, 노한호, 최동석

전시 그래픽
유명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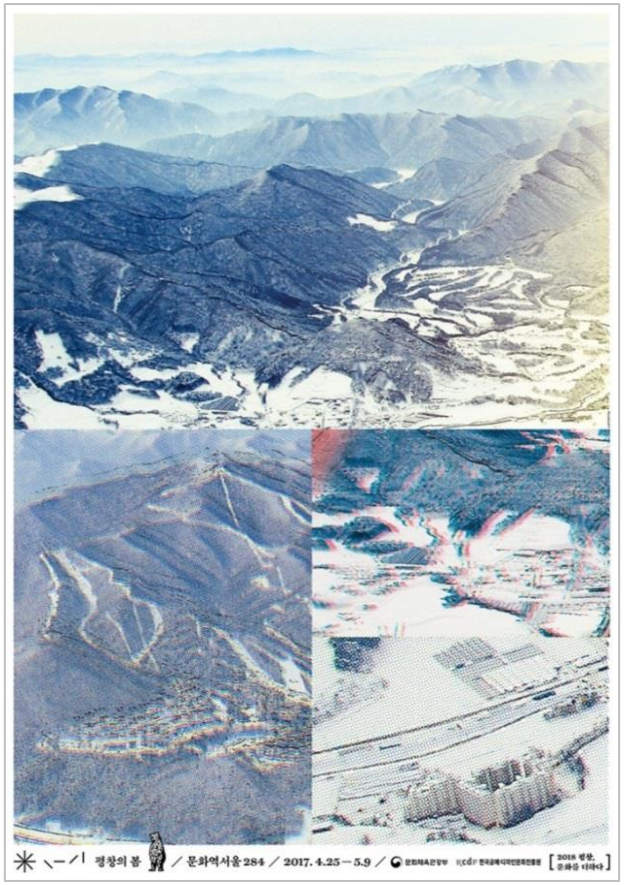
디자인 큐레이션
로컬앤드(동계올림픽과 지역문화)
눈디자인(강원 9경)
송전동(설거지차3)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읽고 먹고 연결하다.)

요리 · 음악 · 영상(개막식)
김송수 쉐프 · 원일 감독 · 배윤호 감독(강원도의 꿈) 등

참여 디자이너
동계올림픽과 지역문화
이기섭, 김욱, 유주연, 이수란
강원9경
131WATT, 소소문구, 양민영, 오늘의 풍경(신인아), 오디너리피플, 워크스, 이정혜, 코우너스, 페이퍼프레스(박신우)
설거지차3
김건태, 전산, 유명상, 동준모
읽고 먹고 연결하다.
박현수, 신영은, 이은정, 이정은, 정해지
김미현(기초조사 자문)

전시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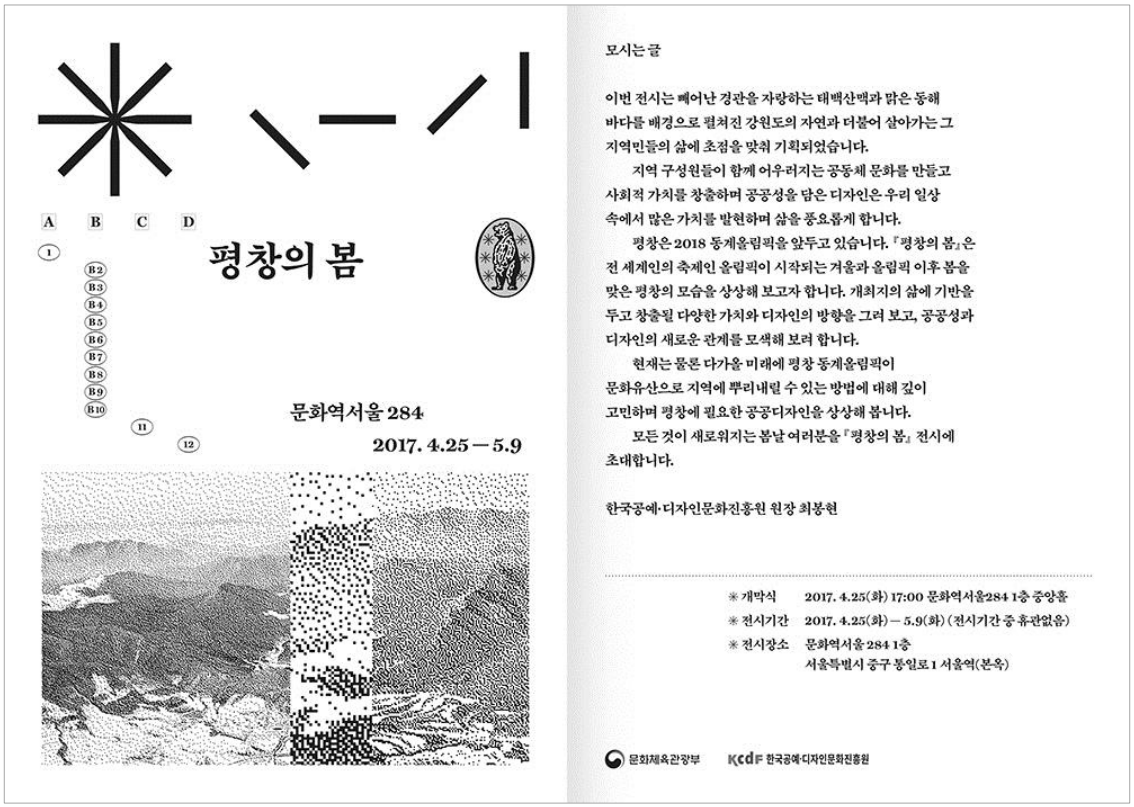
평창의 봄이란 제목은 평창의 풍경을 상상하게 한다. 곧 있을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듯 변화하는 풍경을 담아내려 했다. 또한, 참여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처럼, 공공디자인, 지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보여주려 했다.



〈공식 포스터〉

전시 그래픽

평창의 봄이란 제목은 평창의 풍경을 상상하게 한다. 곧 있을 동계올림픽이라는 대형 행사, 그리고 그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듯 변화하는 풍경을 담아내려 했다. 또한, 참여 작가들의 다양한 관점처럼, 공공디자인, 지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보여주려 했다.



〈초청장〉

전시 그래픽







〈온라인 배너〉



〈입장권〉



〈옥외 홍보물〉

전시 그래픽

강원도의 상징동물인 반달곰을 형상화하여 전시 브랜딩 및 그래픽 등 전시장 곳곳에 활용, 관람객과의 커뮤니케이션 강화

반달곰은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 강원도를 대표하는 동물로, 4월경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재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전시 연계 행사 (디자인 토크)

일정 : 2017.4.26.(수) ~ 28(금) 15:00-17:30

장소 : 문화역서울284 RTO

일자	시간	주제	강연자
4.26(수)	15:00-17:30	지역공동체 플랫폼, 관계구조를 디자인하다.	후쿠요시 다카히데(福吉貴英) (일본 나라 다베루 통신 편집장)
4.27(목)	15:00-15:30	동계올림픽과 지역문화 관찰기	로컬앤드
	15:30-16:00	열두 달 서울과 강원도	131WATT
	16:00-16:30	종이로 태백산맥 만들기	소소문구
	16:30-17:00	더강원도, THE MORE	페이퍼프레스(박신우)
	17:00-17:30	토크 추가	코우너스
4.28(금)	15:00-15:30	지역-재료-공예-장인의 연결고리	이정혜
	15:30-16:00	상징, 캐릭터 그리고 슬로건	양민영
	16:00-16:30	전해진 풍경, 전해진 이야기	오디너리피플
	16:30-17:00	보고싶은 강원도	워크스
	17:00-17:30	소소한 일상에서 발견하는 영감	오늘의 풍경(신인아)

평창의 봄

전시 세부내용

전시 구성



A 동계올림픽과 지역 문화

세계인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올림픽이 열리면 그 개최지의 경제와 문화, 역사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계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보를 친근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기존 개최국들이 자국의 고유성을 어떻게 건강한 지역 문화로 연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2018 평창동계 올림픽과 평창의 지역 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동계올림픽의 역사 전반을 살펴보는 '연대기(Chronicle)', 포스터와 엠블럼, 모토에 담긴 '아이덴티티(Identity)', 개막식과 폐막식, 경기장, 선수촌 등에서 느낀 올림픽의 '경험(Experience)', 기념품과 지역 특산품에 녹아 있는 개최지의 '지역성(Regionality)', 티켓, 이벤트, 픽토그램 등을 살펴보는 '소통(Communication)', 다양한 안전장치를 살펴보는 '안전(Safety)', 올림픽 이후를 전망해 보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올림픽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기록(Record)'이라는 8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동계 올림픽과 개최지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큐레이션 전시이다.



B 강원 9경

공공디자인을 설명하려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문화적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지어 고민해야 한다.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바탕 위에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그 용어 자체가 목적적인 개념이어서 특별히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은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두루 관련되어 있다.

강원 9경은 시각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용어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 다시 말해 소통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이는 디자인의 본령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태백산맥과 동해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가 함께 어우러진 강원도에서 열리는 2018 평창동계 올림픽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 지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보여 준다.

〈평창의 봄〉에 참여한 9개의 개성 넘치는 크리에이티브 팀들과 함께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꿔 본다.



C 설거지 차 3

오늘날의 디자인은 사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고자 하며, 어떤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한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소비와 생산 사이의 어떤 행위를 향한 욕구를 갖기 시작했다. 이런 흐름을 반영해, 생산하는 행위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함께 모인 사람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을 만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상상해 본다.

설거지 차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하고, 축제나 행사장의 시설물 속에서 늘 당연하게 여기던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또한 이런 친환경적 실천과 참여, 소통을 통해 경험의 가치를 창출하며 임시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 준다.

서로 만나서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의 공간인 설거지 차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생산됨을 보여 준다. 평창은 물론 다른 지역 어디서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길 기대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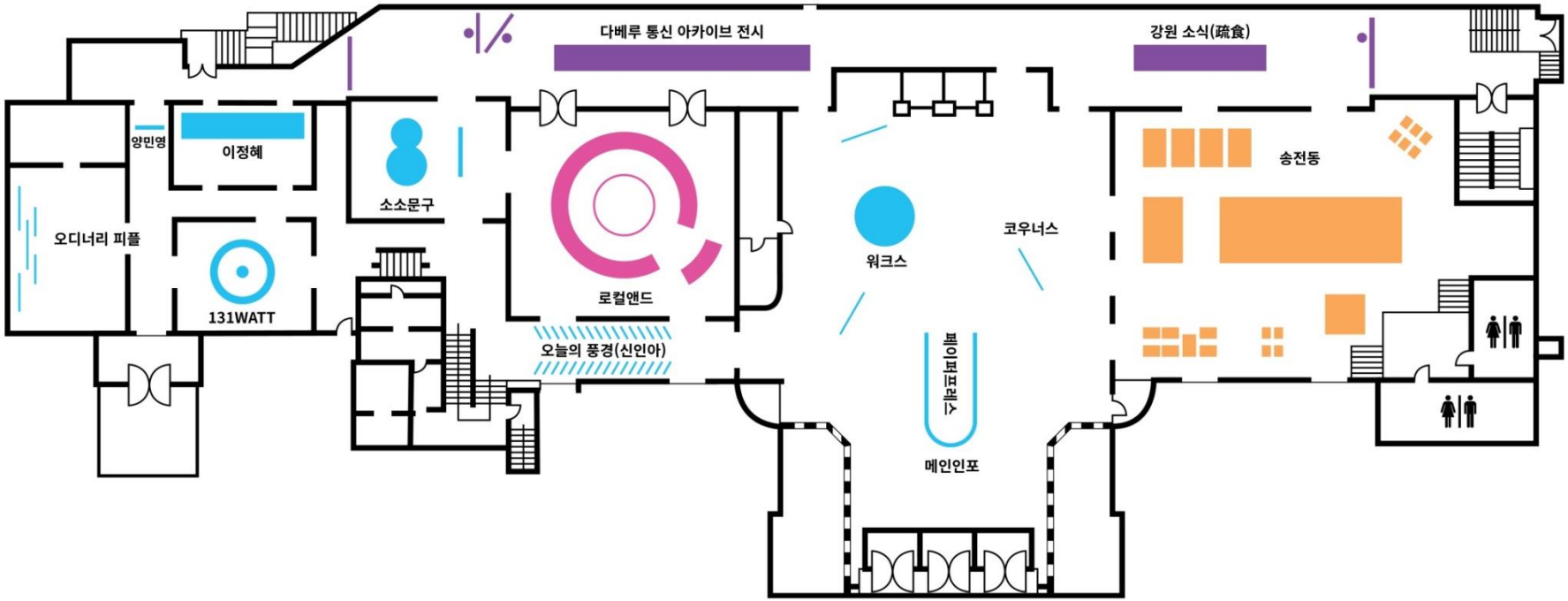
D 읽고 먹고 연결하다

2018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의 기존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개최지 지역민의 삶에 기반한 지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관계 구조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작용하는 일본 다베루 통신과 강원 소식(疏食)을 소개한다.

일본 다베루 통신은 지역 생산자들의 삶의 태도와 철학을 전달해 기존 생산물 유통에서는 보이지 않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채로운 관점과 자발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생성하면서 가치 공유의 공동체가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강원 소식(疏食) 만들기는 어부 김수진 씨와 여덟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의 바다, 그의 땅인 강원도를 '강원 소식(疏食) 0호'에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기록한 다큐멘테이션 영상이다. 강원도의 삶을 읽고, 먹고, 연결하고자 하는 강원 소식은 먹는 시도라는 행위에서 발견된 실천적 공공디자인의 역할과 그 방식이 품은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한다.

전시장 배치도


다베루 통신 아카이브 전시
강원 소식(疏食)
양민영
이정혜
소소문구
오디너리 피플
131WATT
로컬앤드
오늘의 풍경(신인아)
워크스
코우너스
송전동
메인인포

〈동계올림픽과 지역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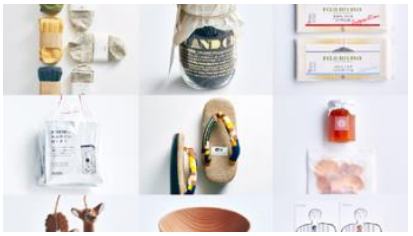
세계인의 축제라 일컬어지는 올림픽이 열리면 그 개최지의 경제와 문화, 역사가 자연스럽게 전 세계에 알려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동계 올림픽 개최 도시들의 다양한 공공디자인 정보를 친근한 방법으로 구상하고, 기존 동계 올림픽 개최국들이 자국의 고유성을 어떻게 건강한 지역 문화로 연계했는지 살펴봄으로써, 다가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평창의 지역 문화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일조하고자 한다.

올림픽 관련 디자인을 중심으로 동계 올림픽의 역사 전반을 살펴보는 '연대기(Chronicle)', 포스터와 엠블럼, 모토에 담긴 '아이덴티티(Identity)', 개막식과 폐막식, 경기장, 선수촌 등에서 느낀 올림픽의 '경험(Experience)', 기념품과 지역 특산품 등 개최지의 '지역성(Regionality)', 올림픽 경기장의 티켓, 이벤트, 픽토그램 등을 살펴보는 '소통(Communication)', 선수들과 관람객, 지역민 들을 위한 다양한 안전장치 등을 살펴보는 '안전(Safety)', 올림픽 이후를 전망해 보는 '지속 가능성(Sustainability)', 전 세계인의 축제인 올림픽을 자료로 재구성하는 '기록(Record)'이라는 8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지난 올림픽과 개최지의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카이브 큐레이션 전시이다.

〈동계올림픽과 지역문화〉








Nagano 1998 "Sunflower" T-shirt
CHF 29.90
Nagano 1998 Games Postcard
CHF 5.00
NAGANO 1998
Nagano 1998 Games Poster
CHF 24.90
Nagano 1998 Mascot Magnet
CHF 12.90
The Snowlets
Nagano 1998 Mascot Pin
CHF 11.90
1998 NAGANO
Nagano 1998 Poster Pin Badge
CHF 11.90
Nagano 1998 Torch Pin
CHF 12.00


Vancouver 2010 Games Postcard
CHF 5.00
Vancouver 2010 Games Poster
CHF 24.90
Vancouver 2010 Mascot Magnet
CHF 12.90
Vancouver 2010 Mascot Pin
CHF 11.90

〈강원 9경〉

공공디자인을 설명하려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문화적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 지어 고민해야 한다.
디자인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바탕 위에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강조되는 예술의 한 분야이다. 그 용어 자체가 목적적인 개념이어서 특별히 공공성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디자인은 사회구성원들의 삶과 두루 관련되어 있다.
강원 9경은 시각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라는 용어에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공공성, 다시 말해 소통을 전제로 하는 공공성에 방점을 찍고자 한다. 이는 디자인의 본령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 태백산맥과 동해바다의 아름다운 경치가 함께 어우러진 강원도에서 열리는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 대한 디자이너들의 다양한 관점과 그 지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선을 보여 준다.
〈평창의 봄〉에 참여한 9개의 개성 넘치는 크리에이티브 팀들과 함께 디자인을 통해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세상을 꿈꿔본다.

〈강원 9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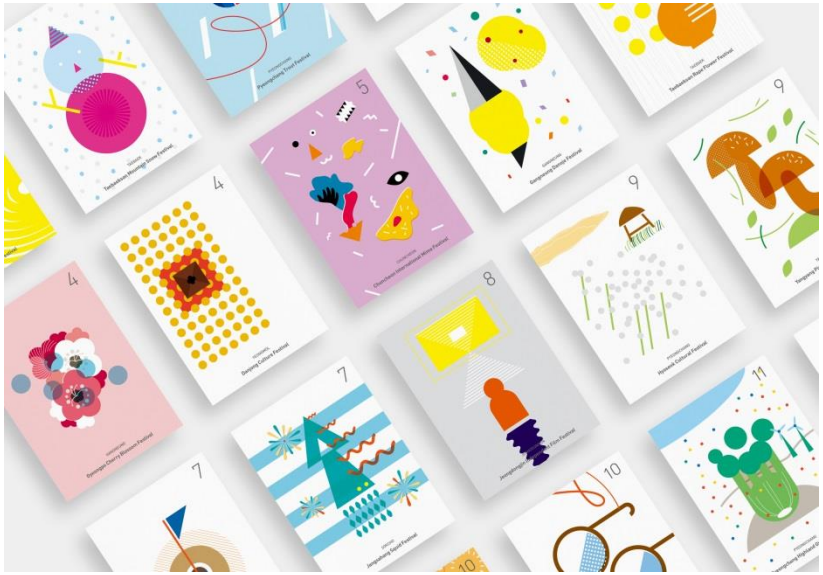
131WATT

작품 소개

열두 달 강원도래요 Twelvemonth Gangwon-do raeyo

〈열두 달 강원도래요〉는 강원도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를 이미지로 표현한 작업이다. 강원도에서는 1년 열두 달 내내 지역 고유 문화, 자연환경, 특산물과 관련한 축제가 열린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강원도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강원도에도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다는 점을 소개한다.
〈열두 달 강원도래요〉는 강원도 내 여러 지역과 전통성, 성격을 고려하여 일부 축제를 선정하여 작업을 진행했다. 5월에 열리는 〈강릉단오제〉는 강릉 지방의 향토 제례 의식으로 한국에서 가장 역사 깊은 축제 중 하나이고, 메밀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9월의 〈평창효석문화제〉는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이효석과 그의 작품을 기리는 축제다. 특산물 축제로는 〈양양송이축제〉를 빼놓을 수 없다. 이 작업을 통해 강원도의 다채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 관람객은 비치된 축제 포스터를 가져갈 수 있고, 직접 강원도 여행을 구성해볼 수 있다. 강원도 여행 키트는 축제일정표가 포함된 노트와 축제 포스터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131WATT / 열두 달 강원도래요 Twelvemonth Gangwon-do raeyo







131WATT / 열두 달 강원도래요 Twelvemonth Gangwon-do raeyo



〈강원 9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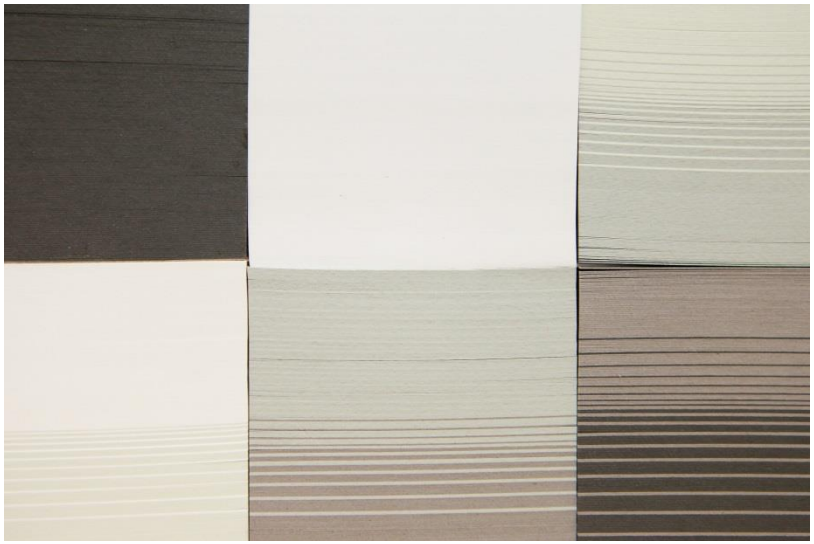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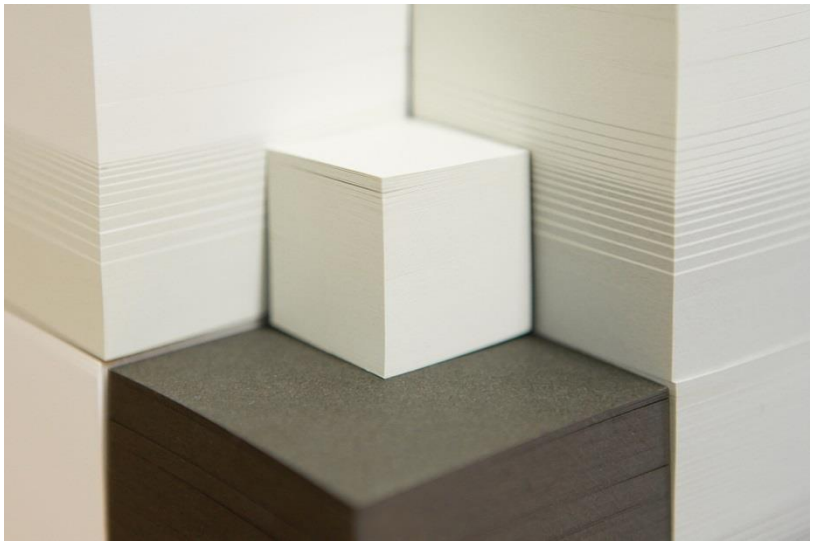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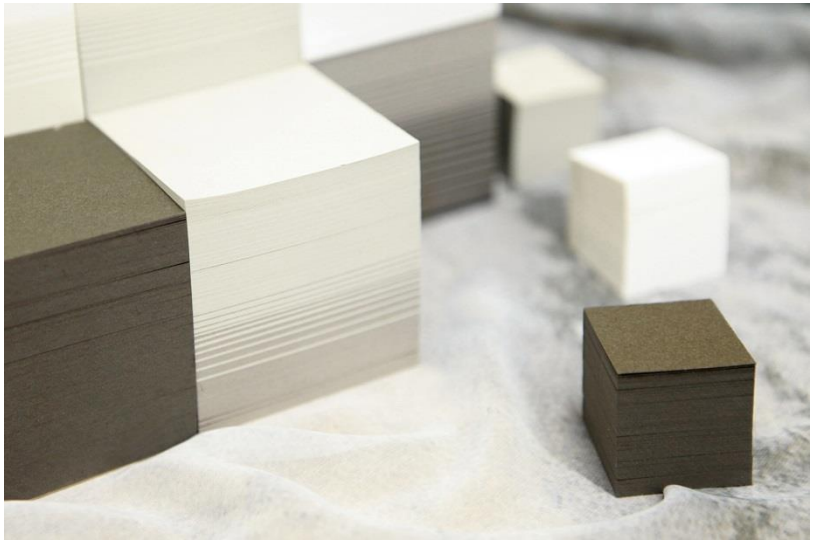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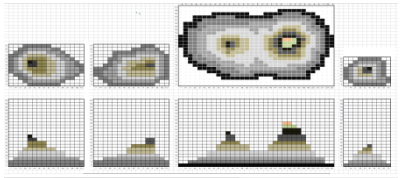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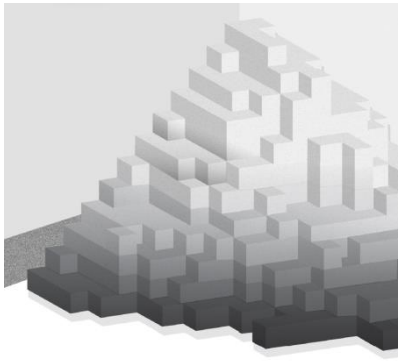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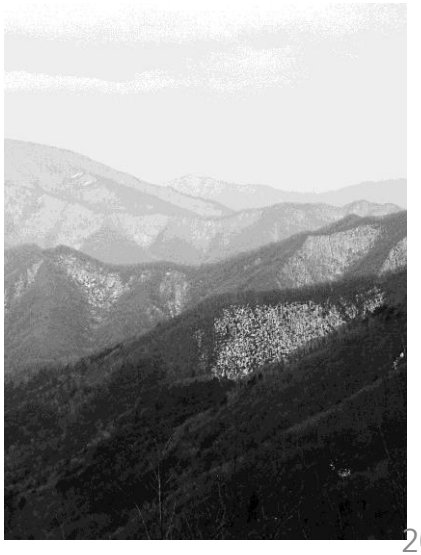
소소문구

작품 소개

산 The Mountain

‘산속은 고요하나 웅성한 아름다운 세상이다.’ 이효석님의 〈산〉에서.
강원도 평창은 크고 작은 산과 령으로 둘러 싸인 지역으로, 이 지역 어느 곳에 가도 대자연에 둘러싸여 있는 기운을 얻는다. 이 자연적 기운을 ‘쌓다, 겹치다’ 라는 종이의 성질을 이용하여 산을 입체적으로 시각화하였다.
강원도 평창의 흙, 나무, 하늘, 바람을 정육면체 모양의 종이 메모지로 단순화한 뒤, 그곳의 대표 문학가 이효석님의 단편소설 〈산〉속 자연묘사를 종이 위에 옮겼다.
강원, 문학 그리고 자연이라는 주제를 작은 메모지에 담아, 관람객에게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한다.

소소문구 / 산 The Mountain

〈강원 9경〉

양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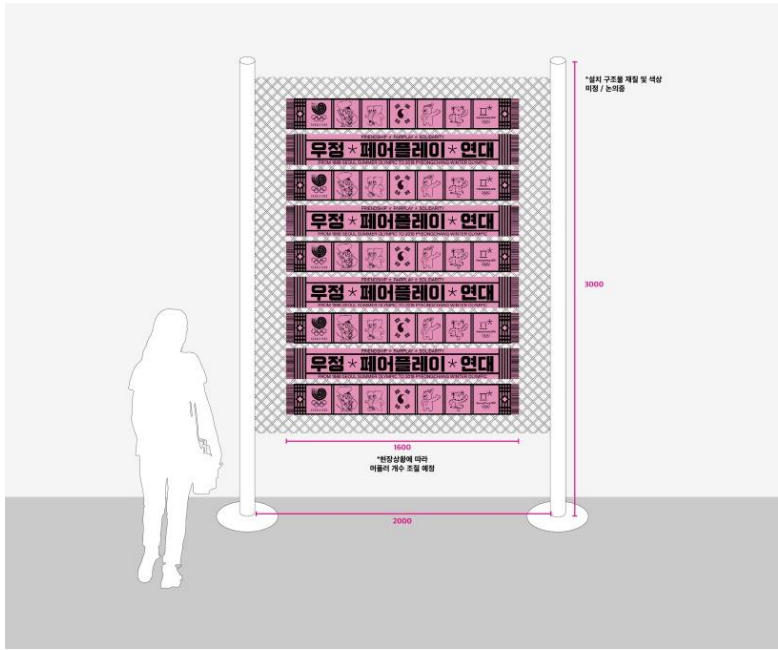
작품 소개

올림픽 응원 머플러 OLYMPIC CHEER MUFFLER

일상생활에서 추위를 견디거나 멋을 내기 위해 목에 두르는 머플러와는 달리, '응원 머플러'는 주로 축구팀의 팬들이 경기를 보러갈 때 착용하는 아이템이다. '응원 머플러'에는 팀의 상징이나 슬로건 등이 적극적으로 쓰인다. 이러한 특징은 유니폼처럼 착용자에게 소속감을 주고, 서로 같은 머플러를 착용할 경우 연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번 전시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한국에서 30년만의 올림픽 개최를 기념하며, 올림픽을 일상에서 함께 즐기기 위한 아이템으로써 '응원 머플러'를 제안한다. 머플러의 한 면에는 개최될 2018 평창 올림픽의 상징인 '수호랑', 패럴림픽의 '반다비'와 더불어, 우리에게 기억 속에 친숙하게 남아있는 1988 올림픽의 상징 '호돌이', 패럴림픽의 '곰두리'를 함께 담았다. 또 다른 한 면에는 올림픽 헌장의 기본 원칙 중 4번 문장에서 '우정, 연대, 페어플레이' 세 단어를 인용했다. '올림픽 응원 머플러'는 동계 올림픽이라는 행사가 열리는 계절에 맞는 실용적인 상품이면서, 행사가 끝나고도 이를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념품이자, 매력적인 패션아이템이다. 개최지 현장의 주민들과 방문객이 아니더라도 각자의 일상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올림픽을 즐기는 사람들까지, 특정 팀이나 국가를 응원하는 것이 아니어도, 올림픽 행사 자체를 즐기는 같은 사람들을 하나의 '팀'으로 묶어주는 표식과 같은 기능을 할 수도 있다. 또한 올림픽 정신이자 현재 우리가 사는 이 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는 가치인 서로에 대한 '응원과 연대'라는 메시지를 담은 물건이기도 하다.
(한글 서체: 불조심체 / 디자인: 유명상)

양민영 / 올림픽 응원 머플러 OLYMPIC CHEER MUFFLER





〈강원 9경〉

오디너리피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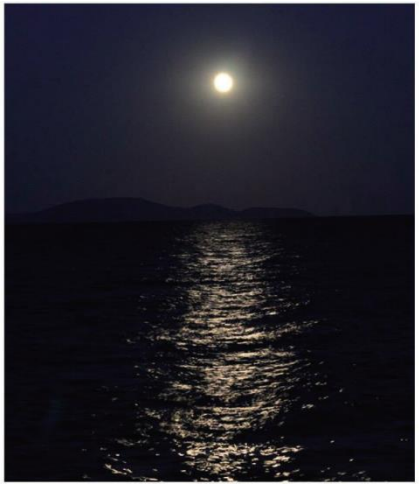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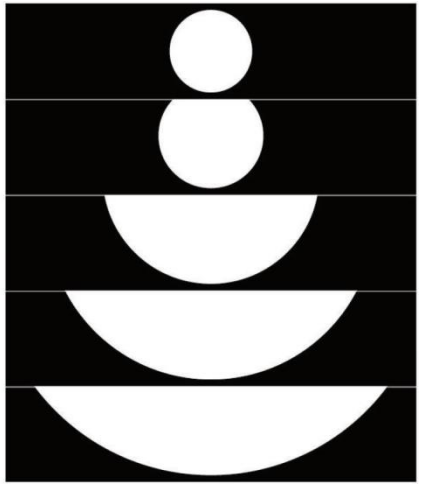
전해진 풍경 Passed down scene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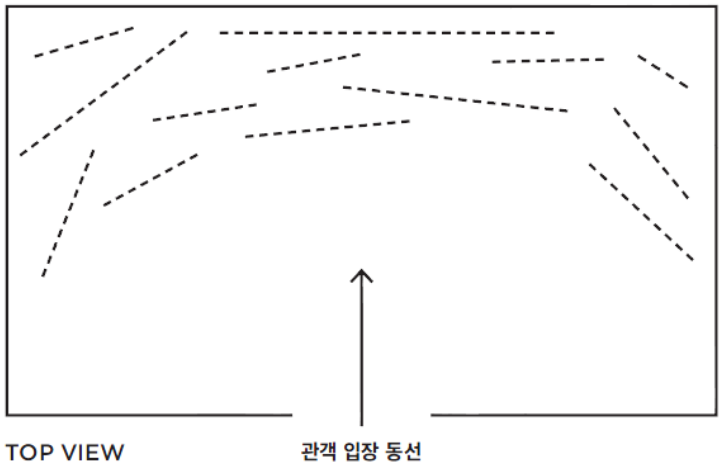
평창을 비롯한 강원지역은 옛부터 빼어난 자연경관으로 여러 문인들이 유람을 다니며 자연을 노래한 시가를 많이 남겼다. 또한 지역과 명소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밖으로는 지역이 가진 특색을 보여주며, 안으로는 지역이 가진 역사와 가치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문화다.

우리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 강원도의 지형과 명소에 담긴 이야기를 그래픽을 통해 만들어진 풍경으로 관객에게 전한다. 우리가 찾아낸 이야기의 전달자들이 그러했듯, 우리는 이야기를 구전하던 수많은 화자 중 한 명이 된다. 다만, 그 이야기를 전하는 방식은 말이 아닌 그래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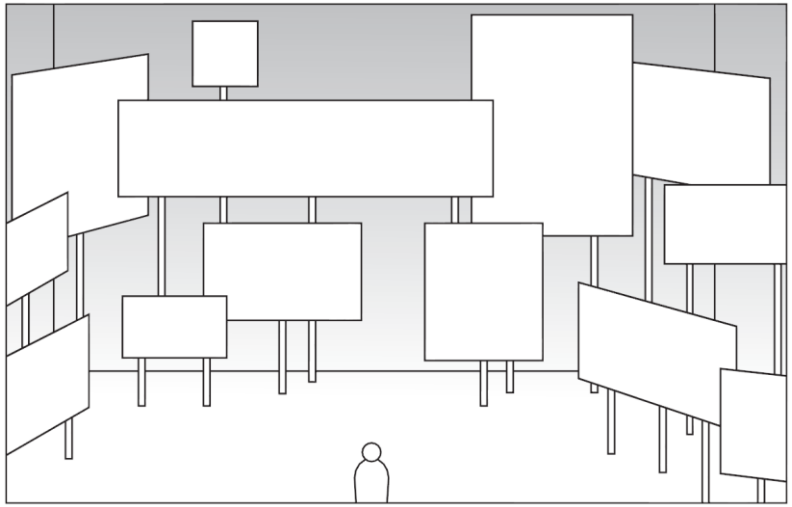
오디너리피플 / 전해진 풍경 Passed down scenery







TOP VIEW 관객 입장 동선



FRONT VIEW



〈강원 9경〉

워크스

작품 소개

보고 싶은 강원도 Ever Missing Gangwon

강원도는 면적의 대부분이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태백산을 기준으로 나뉘어 지역 내에서도 다양한 지리적 특성과 풍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원도의 풍경을 '아이콘'으로 개발해 강원도 그래픽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자 한다. 추상적이거나 거시적인 지역의 특성을 단순하고 작은 그래픽으로 표현해 가볍고, 유쾌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한다. '보고싶은 강원도'의 관광상품은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평창, 강릉, 정선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그래픽 시스템으로 통제하여 만들어낸 새로운 '뷰'로 체험하도록 한다.
아이콘 시스템과 강원도의 풍경을 담은 사진을 조합해 외지 방문객에게는 특별한 감상을, 지역민에게는 내 지역의 풍경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경험을 선물하고자 한다.

워크스 / 보고 싶은 강원도 Ever Missing Ga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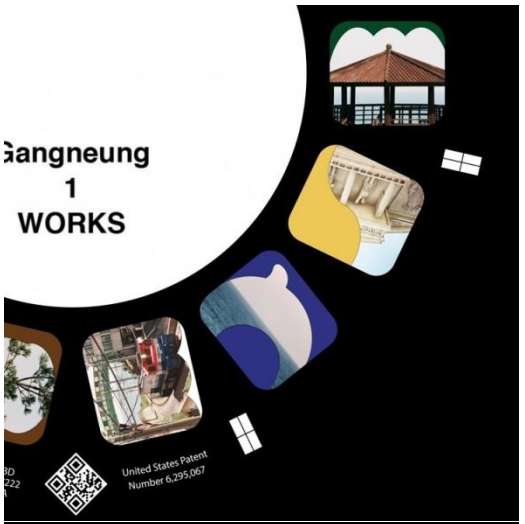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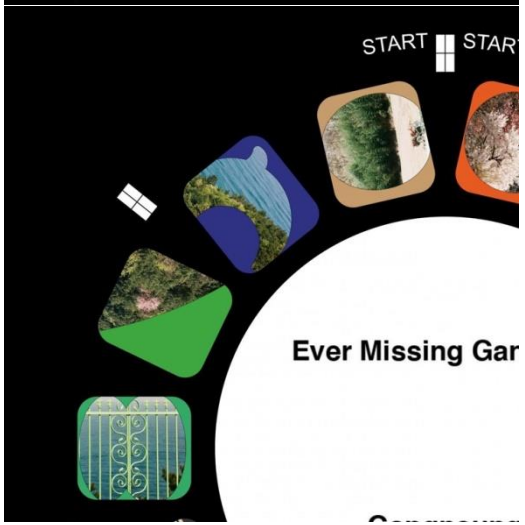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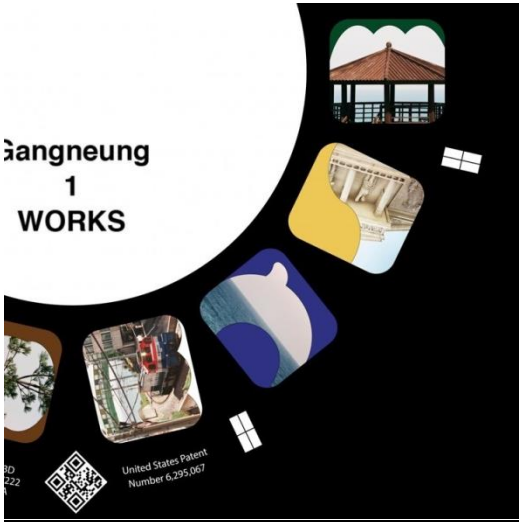








워크스 / 보고 싶은 강원도 Ever Missing Gangw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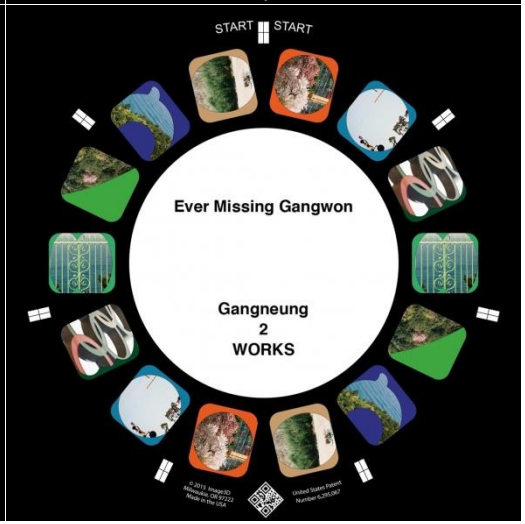












〈강원 9경〉

이정혜

작품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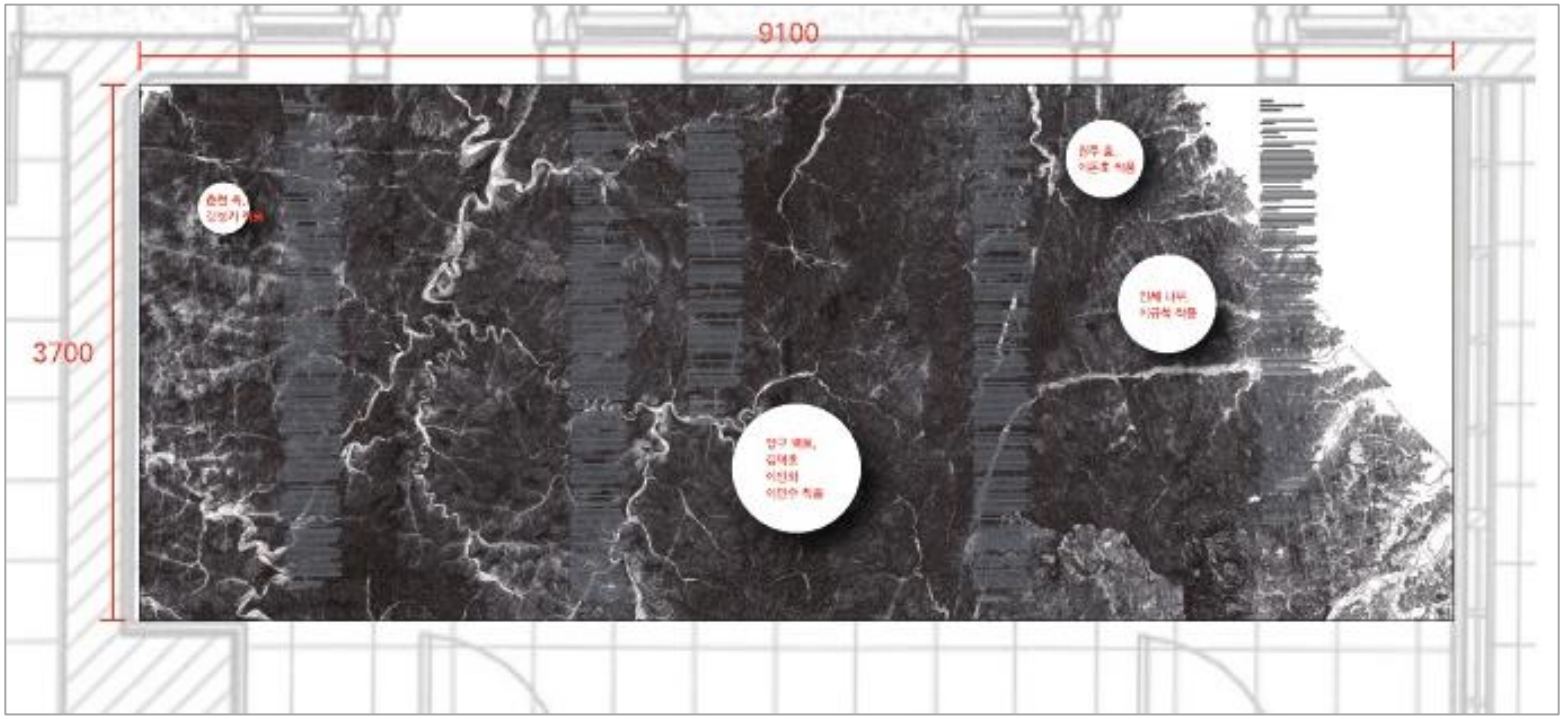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People toward the 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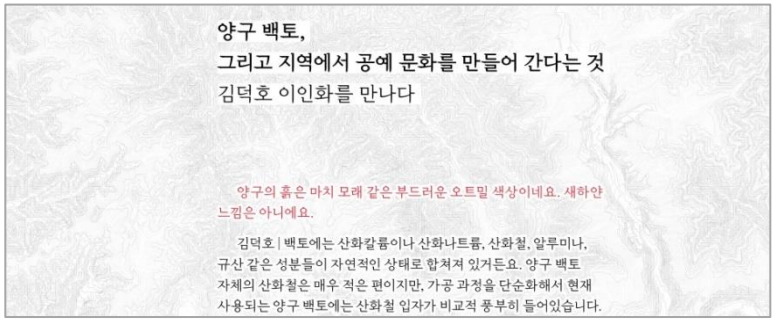
강원도는 험준한 산이 이어진 지형으로, 참으로 오랜 세월 척박하고 외로운 삶을 견뎌야 하는 곳이었다.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 먹거리도 화려하지 못했고, 외부의 문물을 빠르게 받아들이거나 내보내지 못했다. 투박하면서도 진솔한 멋을 지닌 강원도의 공예는 홀로 천천히 사물의 아름다움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장인들의 고독한 싸움으로부터 나온 것일지도 모르겠다.

깊고도 높은 산이 만들어 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을 이곳에서 발견하고 고집스럽게 그 성질을 연마해 온 네 곳의 공예가들을 만난다. 양구의 백토로 백자를 만드는 김덕호·이민수·이인화, 원주의 옻을 나무에 먹여 생칠 목기를 만드는 이돈호, 춘천의 옥으로 장신구를 만드는 강성기, 그리고 인제에 살며 강원도에서만 나는 나무들로 조각과 도마를 만드는 이규석.

땅이 만들어 준 산물을 따라 강원도로 향한 이들의 생에는 질곡이 많았다. 외딴 곳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 온 이들의 이야기에는 슬픔과 분노가 많다. 그리고 이는 한국에서 공예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는 생산 환경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을 보여준다. 이들을 만나는 여정을 지도와 책자로 엮어내며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공예의 아름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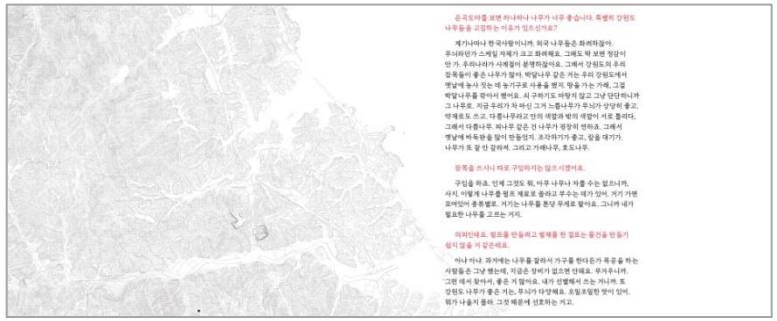
이정혜 /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People toward the land




양구 백토,
그리고 지역에서 공예 문화를 만들어 간다는 것
김덕호 이인화를 만나다

양구의 흙은 마치 모래 같은 부드러운 오트밀 색상이네요. 새하얀 느낌은 아니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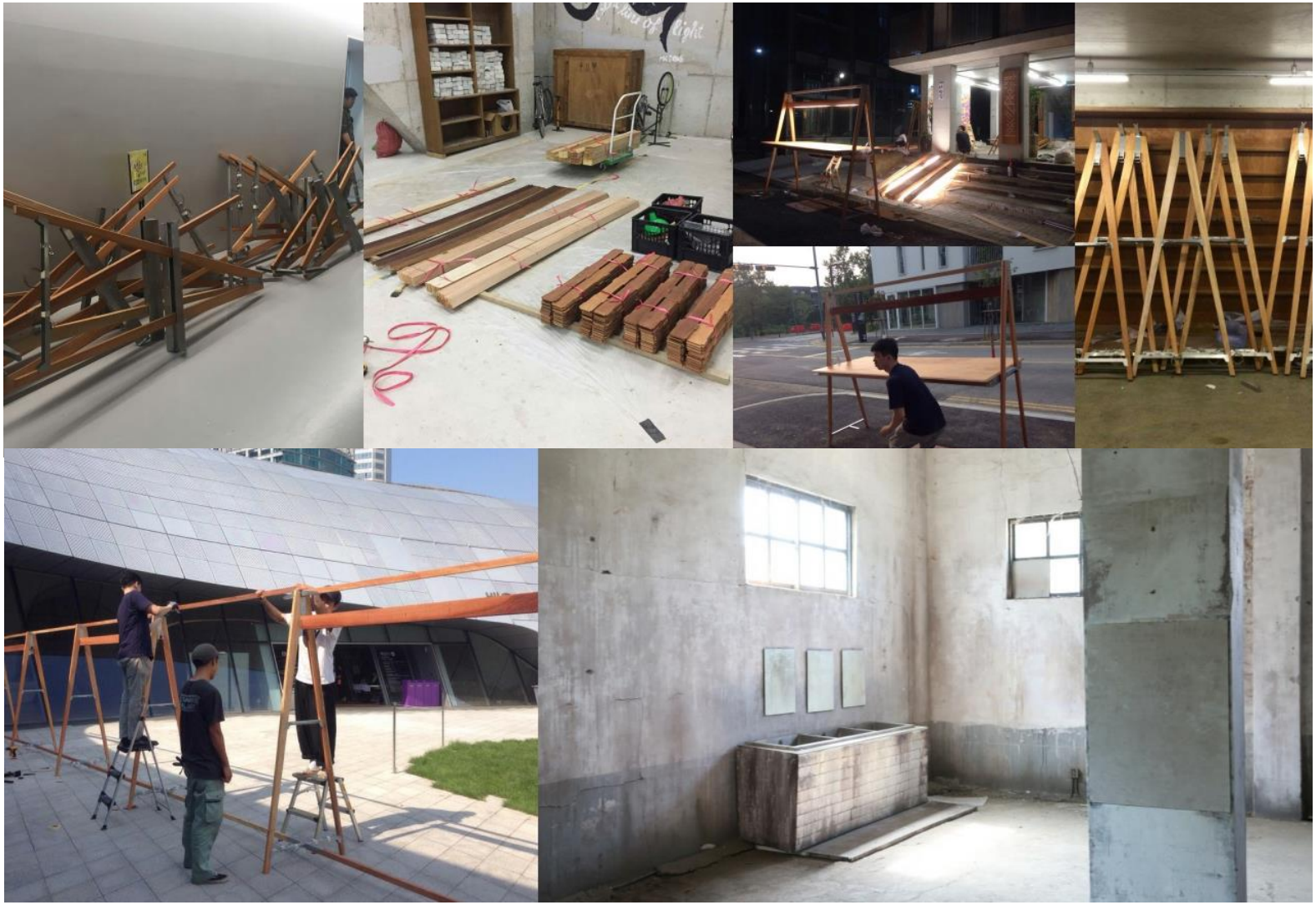
김덕호 | 백토에는 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 산화철, 알루미나, 규산 같은 성분들이 자연적인 상태로 합쳐져 있거든요. 양구 백토 자체의 산화철은 매우 적은 편이지만, 가공 과정을 단순화해서 현재 사용되는 양구 백토에는 산화철 입자가 비교적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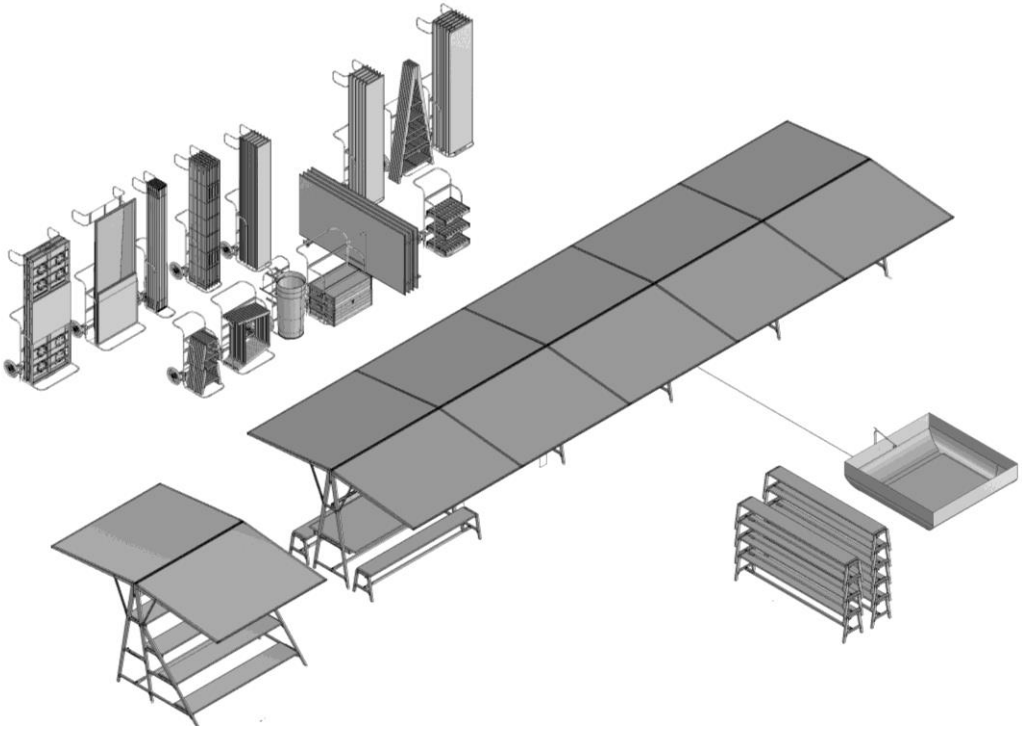
〈설거지차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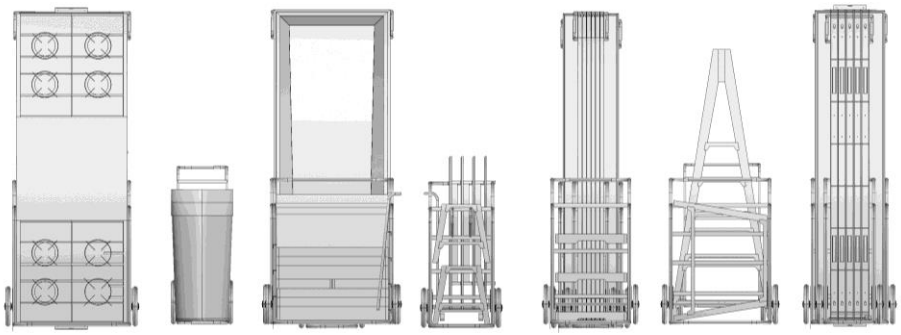
오늘날의 디자인은 사물을 만드는 것을 넘어 새로운 경험을 창출하게 한다. 지역과 문화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고 어떤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한다. 따라서 올림픽을 위해 찾은 세계인들에게 강원도라는 지역과 문화를 어떤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고 실천적 모델을 제시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흐름에 따라 사람들이 소비와 생산 사이의 어떤 행위에 욕구를 갖기 시작했다. 따라서 생산하는 행위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관찰하거나, 함께 모인 사람들과 교류하는 장을 만들면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상상해 본다.
설거지 차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기도 하고, 축제나 행사장의 시설물 속에서 늘 당연하게 여기며 기회비용이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행동을 이끌어 내기도 한다. 또한 친환경적 실천과 참여, 소통을 통한 경험의 가치를 창출하며 임시 공간의 무한한 확장성을 보여 준다.
만나서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경험 공간인 설거지 차는 작은 변화만으로도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음을, 그 안에서 다양한 활동이 생산됨을 보여 준다. 평창은 물론 다른 지역 어디서든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기대해 본다.
‘설거지 차 3’은 물과 불을 사용할 수 있고, 낮에는 차양으로 그늘을 만들고 밤에는 빛을 사용할 수 있으며, 수레여서 이동이 쉽고 보관에 용이한 적재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다. 다른 많은 지역에서도 서로 함께 음식을 만들고, 만든 음식을 함께 먹고 즐기는 풍경이 펼쳐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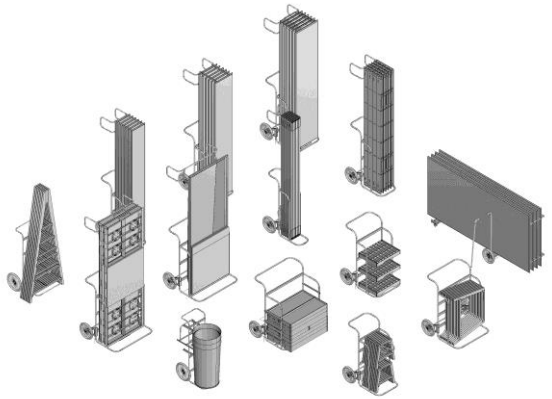
송전동 / 설거지차3 dish-washing ca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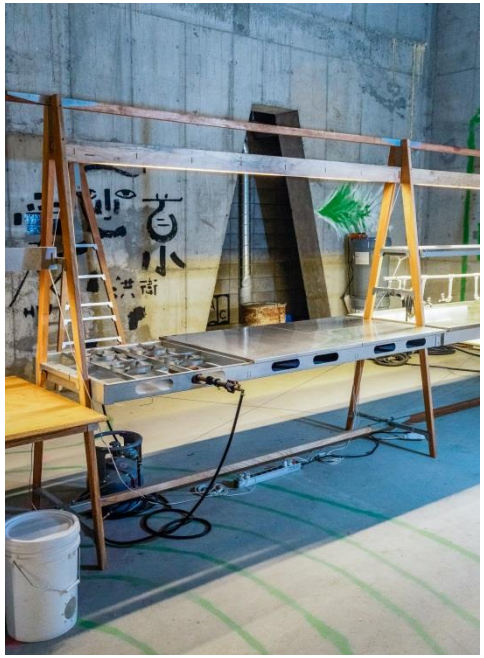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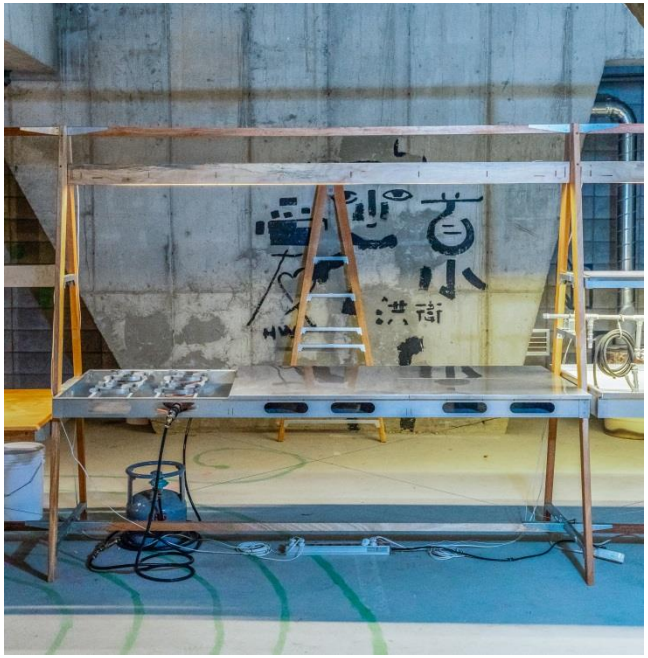
송전동 / 설거지차3 dish-washing car 3







송전동 / 설거지차3 dish-washing car 3

〈읽고 먹고 연결하다.〉

2018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한시적으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지원하는 공공디자인의 기존 역할에 대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개최지 지역민의 삶에 기반한 지역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매개체이자 새로운 관계 구조를 확산하는 플랫폼으로 일본 다베루 통신과 강원 소식(疏食)을 소개한다.
일본 다베루 통신에서는 지역 생산자들의 삶의 태도와 철학을 전달해 기존 생산물 유통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각 지역의 다양한 관점과 자발적인 상호 교류를 통해 지역의 다양한 가치를 생성하는 가치 공유의 공동체 확산 과정을 보여 준다.
강원 소식(疏食) 만들기는 어부 김수진 씨와 여덟 번의 만남을 가지면서 그의 바다와 그의 땅인 강원도를 강원 소식(疏食) 0호에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다큐멘테이션 영상으로 기록했다. 강원도의 삶을 읽고 먹고 연결하는 강원 소식은 먹는 시도라는 행위에서 발견된 실천적 공공디자인으로서의 역할과 방식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Part 1. 다베루 통신 아카이브 전시









Part 1. 다베루 통신 아카이브 전시









Part 2. 강원 소식(疏食) _ 디자인 변경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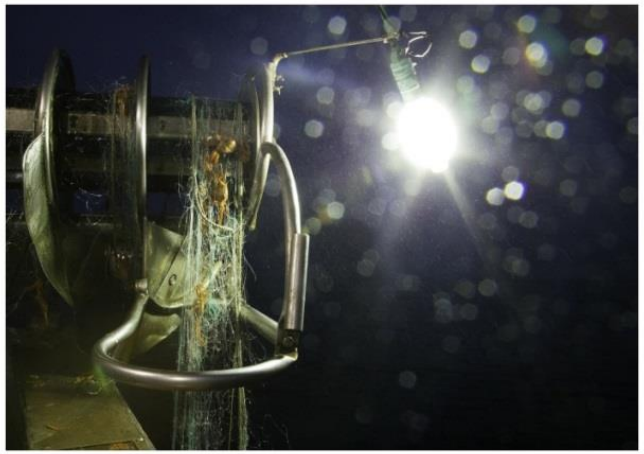




Part 2. 강원 소식(疏食)



Part 2. 강원 소식(疏食)







에 떠 있는 부표를 통해 확인하는데, 일종의 양력표시라고 보면 된다. 부표를 들어 올리면 '심기'라고 불리는 굵은 줄이 따라 올라온다. 깊은 수심 아래에 서식하는 홍게 특성상 이 줄을 끌어 올리는 데만 해도 한 시간가량이 걸린다. 김수진 선장이 양양기에서 올라오

에 떠 있는 부표를 통해 확인하는데, 일종의 양력표시라고 보면 된다. 부표를 들어 올리면 '심기'라고 불리는 굵은 줄이 따라 올라온다. 깊은 수심 아래에 서식하는 홍게 특성상 이 줄을 끌어 올리는 데만 해도 한 시간가량이 걸린다. 김수진 선장이 양양기에서 올라오 에 떠 있는 부표를 통해 확인하는데, 일종의 양력표시라고 보면 된다. 부표를 들어 올리면 '심기'라고 불리는 굵은 줄이 따라 올라온다. 깊은 수심 아래에 서식하는 홍게 특성상 이 줄을 끌어 올리는 데만 해도 한 시간가량이 걸린다. 김수진 선장이 양양기에서 올라오 에 떠 있는 부표를 통해 확인하는데, 일종의 양력표시라고 보면 된다. 부표를 들어 올리면 '심기'라고 불리는 굵은 줄이 따라 올라온다. 깊은 수심 아래에 서식하는 홍게 특성상 이 줄을 끌어 올리는 데만 해도 한 시간가량이 걸린다. 김수진 선장이 양양기에서 올라오

에 떠 있는 부표를 통해 확인하는데, 일종의 양력표시라고 보면 된다. 부표를 들어 올리면 '심기'라고 불리는 굵은 줄이 따라 올라온다. 깊은 수심 아래에 서식하는 홍게 특성상 이 줄을 끌어 올리는 데만 해도 한 시간가량이 걸린다. 김수진 선장이 양양기에서 올라오

을 것을 넣고 유인해 잡는 통발법이 있다. 김수진 선장은 그물을 고집한다. 그물로 잡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서 지속해서 개체 수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발로 잡는 양이 상당해서 언젠가 홍게도 이 바다에서 찾기 어려워질까 걱정을 한다. "연안어업에서 홍게 잡는 사람이 12명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다 잡은 거 합쳐도 통발배 한 척을 못 따라가." 심지어 게가 어느 정도 돈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큰 배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실정이라고 한다. 최근에 연안어업의 규제가 8톤에서 10톤으로 풀렸다. 김수진 선장은 대형 배가 무분별하게 게를 잡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고 있다. "규제를 더 엄격히 해야 하는데, 해양수산부나 어선 어업을 담당하는 곳의 사람들은 내막을 잘 몰라. 팬만 잡고 있으면 알 수가 없어.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현장이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도 현장에서 하지 않으면 안 돼. 미래 자손도 배를 타서 생계를 하고 수익을 낼 방법을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야"라고 단호하게 말한다.

독불장군으로 살 수 없다

홍게가 인기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너도나도 잡기 시작하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뿔뿔이 흩어진 상태에서 조업을 하니 그물이 엉키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게를 잡기는 커녕 그물까지 상해 돌아오는 날을 반복하니 규칙이 필요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홍게 협회다. 김수진 선장은 홍게 협회의 발기인 중의 한 명으로, 지금은 협회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바다에서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닐뿐더러, 자연을 상대로 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다. 그래서 홍게를 잡는 지선어민 12척의 어부들은 모두 협회에 등록하고 활동을 하고 있다. 회의를 통해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리는 시간과 그물의 길이, 위치 등을 약속하고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주고받는다.

지선어민들의 좌판 시장

항구 북쪽에 크게 들어서 있는 주문진 수산시장의 건너편에는 좌판으로 늘어진 어민수산시장이 있다. 규모나 위치, 시설 면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아 관광객들에게는 조금 생소할지 모르지만, 이곳이야말로 살아있는 제철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지선 어민들이 당일 잡은 수산물을 배에서 내려 바로 판매한다. 주문진수산시장에서는 수입, 양식, 냉동, 다른 지역에서 잡은 외지고기 등 큰 규모에 맞게 모든 고기를 팔지만 그곳에 지선어민들이 잡은 생선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판로가 없다 보니 항구 근처에서 좌판을 열어 팔던 게 지금의 시장이 되었다. 어부가 직접 장사를 하지 않아도 입찰을 해서 판매하는 것까지 가능하다. 이곳은 어가를 유지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시장이 없으면 지선 어민들이 잡아 온 고기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 싼 고기랑 경쟁하게 되면, 우리도 덩달아 가격을 낮춰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민들이 설 데가 없잖아."

바톤을 이어나가는 일

명태는 더 이상 동해에 없다. 오징어는 금징어라 불릴 만큼 점점 잡기 힘들어지고 있다. 환경의 변화와 사람의 욕심에 의해 바다의 생태계는 끊임없이 달라진다. 같은 1차산업이라고 해도, 농사를 짓는 땅과 달리 바다는 공동의 소유다.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정치망이나 양식과 같이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않고 한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약속을 하고 그걸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내 것'이 아니어서 아끼고 보존해야 한다는 인식이 조금 미약할 수밖에 없다.

"인간이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어. 숨 쉬는 날까지 먹어야 하잖아. 그러니까 1차산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 건강을 책임지는 원천에 있는 게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우리 밑에 세대를 마지막으로, 할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 우리 몸엔 우리 것이 제일 좋은데, 다 수입으로 먹어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몰라." 국가에서는 어민 후계자라는 이름으로 지원을 하긴 하지만 그걸로는 조그마한 배 한 척도 살 수 없다. 게다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이익을 받는 건 어민들이 아니라, 사업 수완이 좋은 유통 관계자들이 더 많다고 한다. "정말로 사람들이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실실한 수확물을 잡아서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바톤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지."

남아 있는 시간 동안에도 배를 계속 탈 거라면 어떤 어부가 되고 싶냐고 물었다. "나는 긍정적인 어부가 되고 싶어. 앞

Part 2. 강원 소식(疏食)



편집부의 말

주문진 홍게잡이 김수진 선장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여덟 명의 먹거리 만드는 사람들을 만났다. 횡성에서 토종씨앗 농사를 하는 분, 양구에서 곰취를 기르는 분, 평창에서 황태를 말리는 분, 태백과 홍천에서 산나물과 표고버섯을 키우는 분. 우리에게 준비된 시간이 얼마남지 않을 수록 그들과 나누는 대화의 온도는 더해졌다. 그중에서도 나의 곰이 되어버린 태백은 높고 큰 산으로 둘러싸여있어 초입에 다다랐을 때 마치 숨겨진 마을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그곳에서 나고 자란 최여호 농부는 지금의 삶에 매우 만족해 했다. 농사라면 고된 일이고 돈벌이도 변변치 않을 거라는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달랐다. 농사로 얻어지는 수입이 너넉한 이유가 행복의 공식에 있었지만 바쁘게 흘러가는 복잡한 도시를 생각하면 더위를 잘 타는 이 농부에게는 시원하고 한가한 태백만큼 본인에게 잘 맞고 살기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이다. 만족과 여유가 느껴지는 그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출근길 지하철을 가득 메운 사람들과 그 지옥철에 들어가기 위해 헤태우는 청년들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약이 올랐다. '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여유롭게 살수 있다니.'

나 역시 그랬다.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시됐고 그래서 취업을 했다. 5년 동안의 직장생활은 나에게 경제적으로는 안정을 꾀줄지 몰라도 정신적으로 소진됐고 오히려 나에게 맞는 삶이나 일이 무엇인지 되묻는 시간이 되었다. 지금의 청년들은 자신에게 맞는 '옷'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한곳을 바라보며 좁은문을 향해 뛰어 들고있다. 그리고 그 길이 아닌 길은 낭떠러지로 생각한다. 아니,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이 아닌 다른 삶에 대해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생명은 곧 삶으로 해석된다. 먹음으로써 순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엔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살아간다. 나는 1차 산업자의 '일'을 보며 새로운 생활방식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본다베루통신이 반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을 이어주는 매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강원다베루통신은 생산자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나'에게 맞는 다양한 생활방식을 알리는 매체가 되길 기대한다.

내가 딛고 있는 환경과 삶이 어떻게 맺어지는지 30년전에 이미 책으로 담아낸던 루리깊은 나무의 <한국의 발견>은 강원다베루통신을 만드는 내내 큰 힘이 됐다. 오랫동안 우리집 책장 장식품으로 보존했던 이 책을 강원도답사때 마다 들고 다녔다. 다베루통신이 일본 대지진이라는 특이한 상황에서 탄생했고 지금 운영되고 있는 37개현의 다베루 역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강원도를 알기 위해 나는 더욱 <한국의 발견>에 의존했는데 쉽고 소탈하게 쓰여진 글과 80년대 후반 활자로 된 자 한 자 적힌 이 책에는 감동스러운 부분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장기 편집자의 글을 이곳에 옮기고 싶다.

"전통과 변화가 공존하지만 서로 잘 어우르기보다는 부딪침과 다툼이 더 많아 보이는 이 시대에 독자들이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는 '땅', 그러나 더 알고 친해질수록 '나'의 '나됨'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땅과 '나'의 관계를 더 든든히 다지는 일을 조금이나마 거들 수 있게 되기를 빌겠습니다."

신영은

'지금, 왜 다베루 통신인가'는 2013년 7월, 다베루 통신의 출발을 알린 동북 다베루 통신 창간호에 실린 글 제목이다.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편집장 다카하시 히로유키입니다." 로 시작하는 이 글은 정치인이었던 그가 왜 생소한 1차산업의 세계로 뛰어들었는지로 이어진다. 도쿄의 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선거에 출마한 그는 지방의원에 당선된다. 피폐해진 생산현장을 살려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자신도 해보지 않은 일로 누군가를 설득하는 건 불가능했다. 한계를 인지한 그는 정치인이 아닌, 생활인으로서 직접 손과 발을 움직이기로 한다. 이후 동일본대지진을 계기로 자신의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다베루 통신'을 발간하게 된다. 동북 지역에서 시작한 이 작은 매체는 '만드는 사람'과 '먹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이어가며 3년 만에 37개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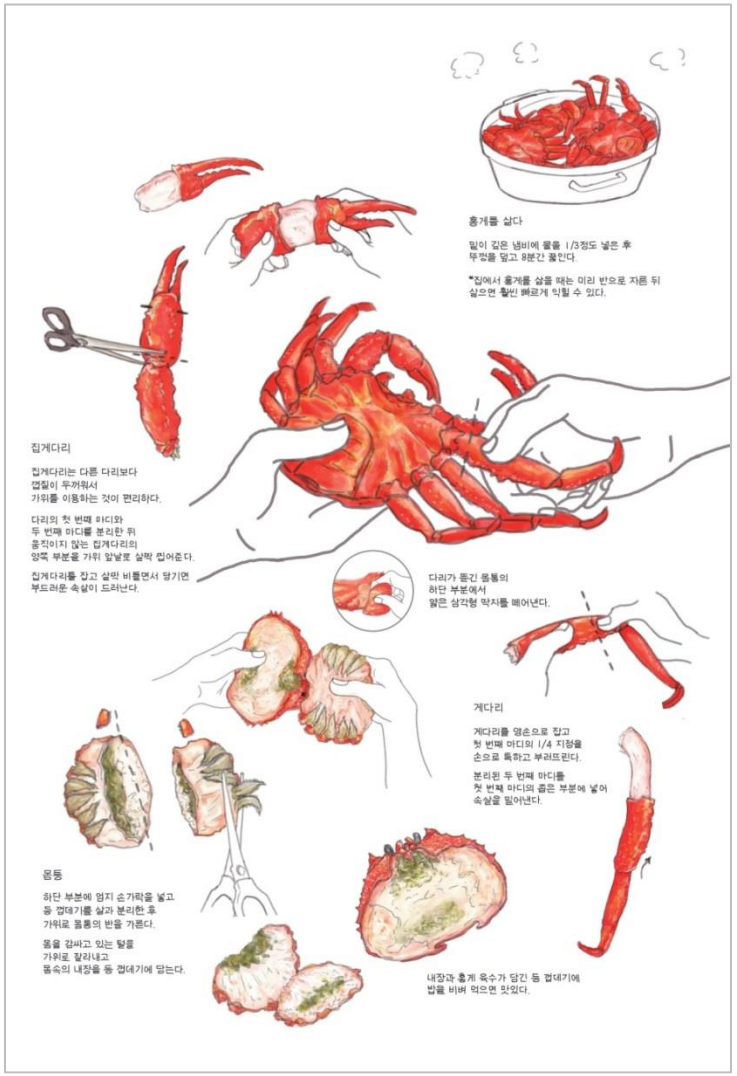
다베루 통신에선 유통구조에 가려 잘 보이지 않았던 생산자의 이야기와 현장의 생생함을 특집으로 다루고, 먹거리는 '부록'으로 제공한다. 보통 식재료가 메인인 배달 서비스를 역으로 제안한 지점이 재밌었다.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의사결정이 자유로운 리그형식으로 꾸려나가는 것, 생산자와 온,오프라인으로 지속적인 관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점도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이것을 실제 '일'로서 지속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가치에 공감한 사람들이 기획부터 취재, 디자인, 제작, 유통까지 적재적소에 결합했다. 방가진 생산 현장의 문제를 제대로 마주 보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들의 멋진 시도를 지켜보며 한국에서도 해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다. 지금까지 1차산업의 생산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컨텐츠가 한국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농어촌의 이야기를 다루는 매체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무엇이 다른가?' 였다. 물론 사회 배경이나 다른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관심있게 본 건 매체로서의 다베루 통신이었다. 이 잡지는 어떻게 하면 현장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닿을 수 있을지 고민한다. 그 흔적은 지면 이곳저곳에 담겨있다. 그 전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작은 부분에서부터 차이를 만들고 감동이 전달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실험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를 찾아다니며 분명하게 느낀 건, 생산자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였다. 그들에겐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런 이야기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시각적 언어가 필요하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고 필요로 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다. 다베루 통신은 먹거리의 중요성이나 도시와 지방의 문제 해결,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 회복, 자연과 인간의 공생 등 어떤 자리에서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느냐에 따라 다양한 층위에서 접속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니 모토록 이 작은 깃발을 시작으로 재밌는 일들이 퍼져 나가길 기대한다.

정해지

Part 2. 강원 소식(疏食)



평창의 봄

전시 개막식 프로그램

개막식 프로그램(안) _식순 및 참석자 변경 예정

2017. 4. 25(화) 17:00 문화역서울284 1층 중앙홀

시간	내용	비고
17:00-17:02(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7:02 - 17:12(10')	축사 인사말	김영산 문체부 문화예술정책실장 최봉현 KCDF 원장
17:12 - 17:22(10')	릴레이 축하 메세지	안상수 파주타이포그라피학교(PaTI) 교장 윤호섭 국민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그린디자인) 이선철 감자꽃 스튜디오 대표 아츠히사 에모리 일본 다베루통신 공동 설립자
17:22 - 17:42(20')	**강원도의 꿈** **홍게 잔치** (스토리 텔링 및 체험)	원일 감독 +정마리+DJ타마 김송수 셰프
17:42 - 18:00(18')	전시 소개 및 관람진행	디자인큐레이션단

개막식 프로그램

강원도의 꿈

요리 · 음악 · 영상

1인가구가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혼자 먹기에 양이 많으며 간편치 않아 홍게는 '혼 게(혼자 게를 먹는다)' 할 수 없다. '평창의 봄'은 강원도 생산물인 홍게 잔치를 통해 함께 음식을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을 통해 보다 더 따뜻한 삶에 한발 더 나아가는 것이 공공디자인의 참 의미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홍게가 강원도의 깊고 푸른바다 동해에서 서울역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생산물 유통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강원도의 바다, 바람과 파도, 어부의 일상, 요리의 과정 등 인간사이의 수 많은 관계와 다양한 행위의 과정과 홍게에서 파생된 수 많은 공동체의 삶의 관계를 통해 우리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한 공공디자인의 역할을 고민해 본다.

일상적 삶의 공간과 리듬에서 발생되고 들려오는 모든 소리들은 그 자체로 새로운 경험이 될 수 있다. 소리유령 –사냥꾼'이 되어 강원도의 비음악적 소리들을 필드 레코딩하여 재공정 한 후 음악화 시켰다. 홍게 채취 과정의 소리와 영상들을 음악적 텍스처로 삼고 그 위에 짧은 프레이즈의 낭송과 연주들을 루프(Loop)시키며 "평평창창"한 의미를 띈 옛 시조 가사들이 해체된 소리의 덩굴들을 관통하도록 구상하였다. 강원도 전통 소리의 레이어들이 고금을 넘어 현재가 되고 모든 소리들은 새로운 가능성, 강원도의 꿈을 향해 해체되고 합쳐진다.

개막식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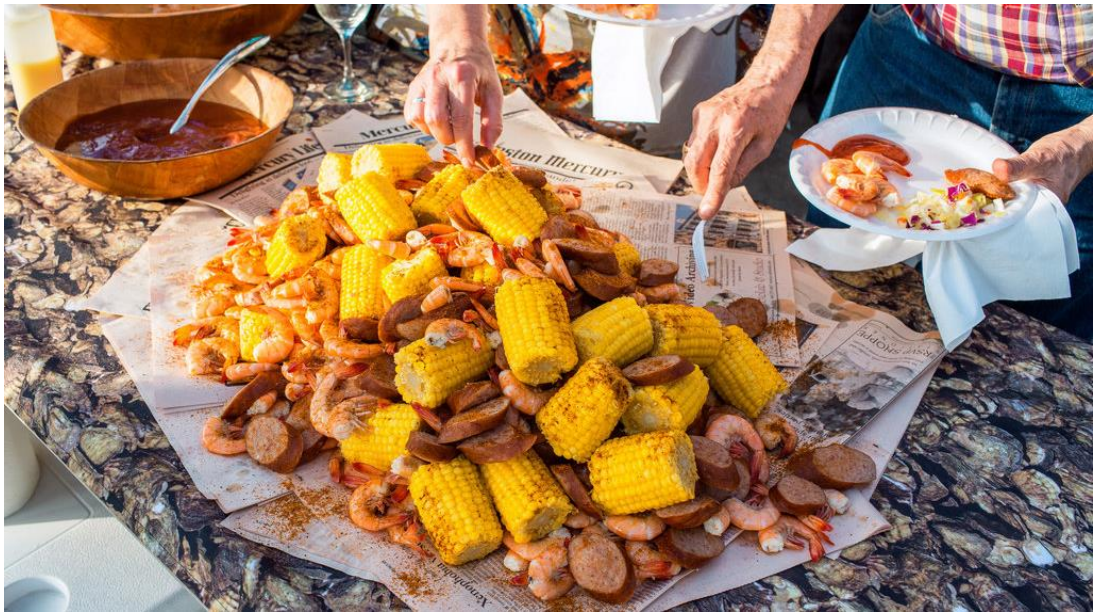
강원도의 꿈

요리 · 음악 · 영상

강원도의 꿈은 태백산맥과 깊고 푸른 동해바다, 강원도의 일상적 삶의 공간의 경험을 영상과 소리를 통해 보여주며 홍게 잔치:**크랩보일(Crab Boil)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 공공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가 올 동계올림픽이 문화유산으로 지역에 뿌리 내리기 위한 작은 실천을 위한 방법 역시 지역민의 일상 속 가까이 있을지 모른다.

*크랩보일(Crab Boil)은 다양한 민족들이 함께 사는 미국 뉴올리언스 지역(프랑스와 스페인의 지배를 받아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사는)에서 게 수확철 동네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 감자, 옥수수 등에 다양한 민족의 양념이 함께 조리한 것을 긴 테이블에 늘어놓고 나누어 먹는 문화이다.

개막식 프로그램 (예시 이미지)











감사합니다.